중국기행 長江처럼 흐르고 있는 中國의 과거, 현재, 미래 —

문화는 시대를 넘어 지속된다

이 석 우
(문리대교수·사학)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만리장성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문 사태의 혈흔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성 외면한 제도·이념 실패 개혁 성공은 역사 숭상에 기인

수·지평선의 나라

중국은 놀랄것이 많지만 우선 그 공간의 넓음이다. 나는 중국을 감히 수평선의 나라, 지평선의 나라라고 부르고 싶다. 북경에서 천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여를 달렸는데 산(山)하나를 아니 구름같은것 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가도 가도 계속되는 지평선과 회색빛 하늘 그리고 청록색의 옥수수밭 같은 들판이 끝없이 펴져 나가고 있을 따름이다. 간간히 농민 몇사람과 운송용 말들이 눈에 띄다 사라진다.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고 농사를 짓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속에 옥수수밭에 묻혀서 사는것 같다.

그곳에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것 같았다. 그말은 곧 시간이 끝없이 흐르고 있음을 말한다. 낭아서 살다가 죽어감이 자기의 의도나 주도아래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요 다만 커다란 운명의 흐름이라는 배에 태워져 어디론가 흘러가다 사라져가는 시간과 역사에 묻힌 인간들을 생각케했다. 사람이 시간을 사는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잠시 받아들였다 버렸다 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적 운명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중국적 운명을 생각

이러한 배경속에서 중국의 유장한 역사와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6천㎞를 넘는 만리장성, 동아세아지배와 군림의 표징적 존재라 할 붉은 기와의 자금성, 곳곳에서 만나는 용(龍)문화의 편만성, 6·4(89)사태의 현장 천안문광장이 그렇다. 중국은 역사를 먹으며 문화를 배설하며 살아온 거대한 생명체 같았다.

문화란 그 풍토와 역사의 산물이다.

그 문화가 건기에 그렇게 존재하기까지는 그럴만한 까닭과 사연이 반드시 있다. 상해(上海)에 내리면 웃통을 벗고 반바지에 거의 반나(半裸)의 몸을 방불케하며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어느곳에나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발견한다. 때로 우리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루만 상해의 덥고 습한 공기에서 지내본 사람이면 자신도 훌훌 벗어버리고 반나가 되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상해는 중국의 어디처럼 물이 귀해서 목욕을 자주하기는 어려웠겠 같다.

사실 중국인들은 나쁜물보 시달리고 있는것 같았다. 그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산이 없으므로(산이 많은 지역재외) 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 버리고, 있다면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인 물이기에 그것이 식수에 적합할리가 없다. 어쩌면 중국의 역사는 물과, 그리고 치산치수와 관계가 깊다. 황하에서 문명이 발생한것도 그때문이 아닌가.

북경의 중심부에 우람하게 선 자금성의 그 화려한 황금색과 9천9백개의 방을 가진, 동서7백50m, 남북이 1천㎞에 이르는 거대함에 우리는 압도당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자의 치열한 자기방어와 권위정출의 고안물임을 간과할수 없다.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대한 5개의 문을 거쳐야 한다. 그 긴 통로는 무엇을 위해서인가? 황제를 알현하려 들어오는 사람의 기(?)를 죽이기 위한 위축로에 다름아니다. 자금성안의 그 긴 통로에 서보면 사대주의가 편만한 위축의 정신이었음을 슬프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힘에 저항하여 깨지기보다는 자기를 지키기위한 수단이었음을 인정하는것은 또 하나의 사대주의적 발상인가? 인간들은 남을 지배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이다.

입시정부청사 김구 주석 흉상앞에.

오른쪽이 필자, 왼쪽은 학생처 한상백씨

정선과 추사 자존심

박물관이나 예술관에서 발견하는 그 수많은 산수화는 중국풍토에서 중국인이 그린 그림이다. 소주(蘇州)와 이화원에 서있는 그 기괴한 석회석같은 정원석은 그들의 산에서 난 돌이다. 그런데, 잘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중국인의 화법에 더 가까워지는 것과 동의어였거나,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괴기한 정원석을 그려냈던 우리의 문인화는 정말 문화적 주체성을 생각케했다. 자기것을 그리지 않고 남의 것을 그리는데 관념적 자족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일부 예술은 문화·배경을 망각한 단순한 기법의 모방에 불과하다. 그나마 진경산수의 정선이 있고, 추사 김정희가 있어 작은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

중국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인부중(人富中)', '지부중(資富中)'이라 한다. 사람이 많다는 것도 실로 실감난다. 그 많은 사람들. 그중에는 혜택받은 사람, 그와 정반대로 어떠어는 마치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듯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다. 에어콘리무진을 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력거에 사람을 태우고 달려야 하는 인간들. 상해의 아침꽃은 여전히 아름다우나 사람이 사는 것은 이토록 천차만별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면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저 살다가 만 가는 사람, 그에게 역사의 짐이란 그저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다. 그러나 어떤이는 역사를 거머쥐고 뒤흔든다. 모택동이 그렇고 등소평이 그렇다. 이들은 모두 시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산다. 모택동은 봉건중국을 현대화 시키기 위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다. 등소평은 실용주의 개방노선을 따라 중국을 성공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그들은 시대의 필요를 예감하고 그것을 실현시킨 사람이다. 사람들은 역사에서 모두 자기의 몫을 가지고 살다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종교, 사회구조, 이념과 같은 요인들을 인정하더라도 역시 역사는 '인간드라마'라는 사실을 중국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역사와 문화의 자부심

그래서인지 인간성을 무시한 제도나 이념이란 끝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펼쳐 버릴 수 없었다. 인간들은 모두 자기를 표현하며 자기실현을 하고 싶어한다. 사람들은 일부 제도의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동기, 의식, 인간성에 따르게 된다. 인간이 유체와 물질이 다함께 어우러져 역사를 만든다. 역사는 사회구조와 물질, 인간정신과 감성이 서로를 반응하면서 만들어가다. 가구지 않은 허술한 아파트, 친절하지 않은 점원, 소비량에 못미치는 식량, 이것들은 자기의 본성이나 이익에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방치된 무관심 속에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중국이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이야기는 이를 증거한다.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중에 생기는 여러문제들도 인간성과 물질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 이해도 한결 쉬워진다.

중국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해온 민족이다. 사마천의 '史記'는 중국인 지혜의 총합이다. 중국이 오늘의 개혁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역사를 갖고 거기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소련이나 기타공산권의 실패에 비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기복은 있을지 모르나 실패한 민족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추앙할 지도자를 갖고 있다. 毛의 문화혁명 실패에도 불구하고 천안문광장에는 모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등은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와 비교해 보자. 우리는 지도자나 역사를 파괴해 버리고 다만 오늘만을 보고 진흙탕속의 싸움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국은 아직 우리보다 가난하지만 그들은 돈 몇푼으로 계산되지 않는 역사와 문화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왜 한국인에 대한 그들의 인상이 썩 곱지 않은지 그 근본을 생각할 때다.

요컨데 중국연수는 삶의 모순과 사회적 모순의 엄존성을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그리고 사회적 모순의 해결과 삶의 모순의 관계는 결코 별개의 것만 아니었다. 함께 간 27명의 대학생들(연대, 단대, 외대, 경희대)은 중국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도 곧 발견해 냈다. 그들을 전적으로 믿어도 좋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쁜 또하나의 소득이었다.

□연극
'마술가게'장기공연

극단 '대학로 극장'은 온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지난 7월부터 무대에 올린 '마술가게'를 내년 2월까지 장기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어느 고급의상실에서 도둑 2명과 경비원이 벌이는 세상풍자극으로 대학로 극장이 우수 창작극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93백상 예술대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한 이상범, 박광정씨가 연출을 맡았다.

1993년 7월7일—1994년 2월28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 월요일, 화 낮, 일 밤 공연 없음)대학로 세미예술극장(741—6069)

대학로 극장의 '마술가게'의 연습장면

수레무대 '스카웨의 간계'

극단 '수레무대'는 인간들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속성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작품 '스카웨의 간계'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새로운 양식을 시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레무대'는 창조적 연극예술을 지향하는 동국대 연극영화과와 서울예전 연극과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9월9일—10월5일 평일 7시30분, 토·일 4시30분, 7시30분(월요일 공연 없음)동숭아트센타 소극장(515—6993)

민예극장 '탈속'

극단 '민예극장'은 제 17회 서울 연극제 공식 참가작인 '탈속(부제:어느 구도자의 초상)'을 공연한다.

73년 창단이래 민예극장의 1백12번째 출품작인 탈속은 한 스님의 인간적 고뇌와 그의 생활속에서 일상 진리를 찾고자 하는 신문기자의 얘기를 그리고 있다.

현재 KBS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무씨가 희곡을 쓰고 강영걸씨가 연출했다.

8월31일—9월19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760—4500)

□무용

서희 앤 댄서즈 정기공연

'서희 앤 대서즈'무용단(대표 최데레사)이 아홉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에 공연할 작품은 '그가 떠난 밤, 그녀는 울었다'와 '환생의 주일'이다.

'그가 떠난밤,…'은 어느날 밤부터 시작되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심리적변화를 다룬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여자 혹은 인간의 세밀한 심리적 구조와 심사을 다양하게 묘사한 작품. '환상의 주일'은 인간의 긴 인생여정을 한주일로 단축시켜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환생의 시간을 이야기한 작품으로 고통의 시달림의 끝에서도 다시 환생되는 인간의 보습을 보여준다.

9월13일—26일 평일:저녁8시 토·일:오후 4시 신촌 홍대앞 포스트 극장(337—5961)

□국악

대한민국 국악제 13번째

제13회 대한민국 국악제가 오는 11일—12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13일 서울중앙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서희 앤 댄서즈의 연습장면

대전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국악제는 년계 박연을 주제 인물로 설정, 12농가월평가의 형식으로 꾸며지며 빈요와 창, 무용 이외에도 경악, 관현악 합주, 창극, 민속굿 등 국악의 각 장르를 고루 선보인다.

한국 국악협회(744—8051) (주)비앤알(515—8061)

신입사원모집

미래와 함께하는 (주)한농이
함 께 하 농
의욕에 찬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욕 찬 젊 재 찾

책임과 의욕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어 갈 인재가 필요합니다.

1. 모집부문

해당학과	모집인원	근무지	응시자격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원예학	○명	서울, 수도권지역	대학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1964. 1. 1 이후 출생자)
경영학	○명		4년제 대학 졸업 및 94년 졸업예정자 (1966. 1. 1 이후 출생자)
식품공학	○명		
법학	○명		
기계공학	○명		
농학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원예학	○○명	서울 및 전국 도청소재지	

2.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 최종학력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13 (주)한농 관리부 (우편번호 135—010)
- 접수기간 : 1993년 9월 14일한

5. 기타
- 이력서상단에 인력전화번호, 희망근무지를 명기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주식회사 한농

(02) 722-4644

ENGLISH TEACHING SERVICES

영어/일어 회화가
꼭 필요한 학생들만
보십시오!

딱 1주일만 학습해 보십시오.
힘들게 외우거나,
따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 방법에 따라
반복해서 듣기만 하십시오!
교재는 무료로 진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PLM을 도입한
차세대 외국어 회화 교재

ETS는 감각적 인지 학습법(PLM)을 도입한 어학 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가 금지되어 왔던 정치 암살 秘史—

MBC-TV「제3공화국」의 작가
이영신의 정치 암살 秘史

비밀결사 白衣社 전3권

아직 못 읽으셨습니까?
「비밀결사 白衣社」를 읽지 않고
어찌 민족을 들먹이고
통일을 論한단 말입니까!

"김일성 암살 작전"

그 안타까운 진상!!

- 「白衣社」 핵심 단원 김두한의 눈물신 활약은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그의 진면목을 새롭게 이해시키기에 충분하다.(東師公論)
- 「비밀결사 白衣社」는 해방 직후 반공 투쟁의 모루로서 김일성 암살 작전 등을 추진했던 치열한 현대사의 백미다.(경향신문)
- 당대 제일의 공산주의 이론가 천준혁 암살 주범이 지금까지 정설로 기록된 장시우가 아니라 「白衣社」 단원 백관옥이란 사실은 충격적이다.(신동아)
- 「비밀결사 白衣社」는 이제에 민주정투를 수립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한 반공 결사체의 투쟁기록이다.(日間스포츠)
- 「비밀결사 白衣社」는 천준혁 암살,김일성과 암양동,암살 미수, 여운형 테러 및 암살 등 해방 직후의 치열한 반공투쟁이 「白衣社」 단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충격적인 공개다.(월간 北韓)

도서출판 합빙문 각권 4,500원

●TEL. 671—7861~2 ●FAX. 671—7862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 중
TV드라마 방영 예정!!